

네덜란드의 망중립성 법제화 동향

Dutch Discussion and Legislation of Net Neutrality and Its Implications

김성철 (S. C. Kim)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 팀장
민대홍 (D. H. Min)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 선임연구원

목 차

-
- I . 서론
 - II . 망중립성 논의 배경
 - III . 망중립성 법제화 현황
 - IV . 망중립성 법제화 이후 동향
 - V . 결론

네덜란드는 지난 6월 유럽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통신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네덜란드에서의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2011년 4월 최대 통신사업자인 KPN이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별도 과금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이후 촉발되었다. 네덜란드 통신사업자들은 무료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나 메시지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은 급증하는 반면 통신업계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 과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이용자와 소비자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제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 반발하였고, 정치권이 이에 적극 동조하면서 법제화의 단계까지 진전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망중립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에서의 망중립성 법제화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법제화 이후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 서론

네덜란드는 지난 6월 유럽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통신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네덜란드에서의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2011년 4월 최대 통신사업자인 KPN이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별도 과금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이후 촉발되었다.

네덜란드 통신사업자들은 무료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나 메시지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은 급증하는 반면 통신업계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추가 과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이용자와 소비자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제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 반발하였고, 정치권이 이에 적극 동조하면서 법제화의 단계까지 진전되었다.

망중립성은 일반적으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콘텐츠의 제공과 이용에 있어 망 사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는 망중립성에 대해 ‘인터넷에서 소통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Ofcom은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한 트래픽 전송의 우선권이 없고 개방형 인터넷에서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전송에 따른 대가부담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FCC는 2010년 12월 채택한 고시를 통해 망중립성 개념을 투명성, 접속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합리적 망 관리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1],[2],[3],[4].

일본 총무성은 첫째 이용자가 IP 망을 유연하게 이용해서 콘텐츠/애플리케이션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이용자가 기술기준에 합치하

는 단말을 IP 망에 자유롭게 접속해 단말 간의 통신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이용자가 통신 레이어 및 플랫폼 레이어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망중립성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서 “네트워크의 공평한 이용”과 “네트워크 비용의 공평한 부담”을 제시하였다[5].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망중립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에서의 망중립성 법제화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법제화 이후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망중립성 논의 배경

1. 네덜란드 이동통신 현황

네덜란드에는 KPN, Vodafone, T-Mobile 등 3개의 MNO(Mobile Network Operator)와 다수의 MVNO(Mobile Network Operator)가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KPN은 네덜란드 최대의 통신사로 2010년말 기준 35~40%의 시장점유율로 이동통신분야 1위 사업자이다. KPN은 국영통신사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EU Commissioner로 EU의 망중립성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Neelie Kroes가 네덜란드 통신부 장관 시절이던 1980년대 민영화 되었다. Vodafone Netherlands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이동통신사 Vodafone Group의 네덜란드 자회사로, 25~30%의 시장점유율로 KPN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T-Mobile은 Deutsche Telekom의 자회사로 2007년 9월 Orange를 인수하였으며, 2010년 말 기준 20~25%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6].

<표 1>은 네덜란드 이동통신시장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0년 말 기준으로 음성 매출이 17억

〈표 1〉 네덜란드 이동통신 매출 추이
(단위: 천 유로)

	2008	2009	2010
음성매출	1,830,978	1,714,561	1,702,277
SMS서비스 매출	339,863	352,594	376,087
데이터서비스 매출	189,084	258,512	349,056
기타(콘텐츠)	63,994	42,199	34,977
전체	2,423,919	2,367,866	2,462,398

〈자료〉: OPTA, 2011. 5.

223만 유로, SMS서비스 3억 7,609만 유로, 데이터 서비스가 3억 4,906만 등 총 약 24억 6,240만 유로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중 음성 및 SMS 매출은 정체상태에 있지만, 데이터서비스 매출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등 데이터서비스는 이동통신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2.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개편

무료 VoIP, SMSoIP 등의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은 급증하는 반면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 매출이 감소하자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과 방안을 추진하였다.

KPN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자사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의 85%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WhatsApp을 다운로드 하였으며, 무료 메시지서비스로 인해 SMS 수익이 2011년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8%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하면서, WhatsApp과 같은 무료 메시지서비스 등이 유발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이용요금을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2011년 4월 KPN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 형태별로 차등화된 요금제 도입¹⁾을 공식 발표하였다. KPN의 새로

1) KPN의 이번 요금제 개편은 SMS 및 음성통화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 형태별로 차등화된 요

운 요금제는 Skype 이용에 월 3유로, Facebook MB 당 0.02유로, YouTube 시간당 0.5유로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7],[8].

Vodafone은 자사의 3G 통신망에서 VoIP 및 SM-SoIP를 차단하고 있으며, T-Mobile은 사용자들이 Skype 및 WhatsApp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KPN의 요금제 개편에 대해 Vodafone은 KPN을 뒤따르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Vodafone은 이미 지난해 다량 이용자(heavy user)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FUP(fair use policy)를 폐기하고 월 1GB로 이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Tele2 Netherlands 또한 2011년 5월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이용량기반 요금제로 개편하였다. Tele2 Netherlands는 ‘Small’, ‘Medium’, ‘Large’ 등 3가지의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Small 요금제의 경우 월 5유로에 50MB 이용량, Medium 요금제는 월 10유로에 500MB 이용량, Large 요금제는 월 15유로에 1GB의 이용량을 제공하고 한다.

III. 망중립성 법제화 현황

1. KPN 요금제를 둘러싼 논쟁

KPN의 새로운 요금제에 대해 네덜란드 통신규제 기관 OPTA와 EU 집행위원회는 요금 산정 방식이 투명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OPTA는 KPN이 개별 서비스 접속에 부과하는 요금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적용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²⁾고 밝혔으며, EU 집행위원회도 이

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2) OPTA 관계자는 KPN의 새로운 요금제는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패키지 형태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고 언급하였다.

동통신사가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하지 않는 한 서비스 접속에 따라 차등화된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7].

그러나, 이용자 및 소비자 단체들은 KPN의 새로운 요금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같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이용자들은 KPN의 특정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요금 부과에 대해 반발하였고, 특히 자신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통신업체가 어떻게 알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시민단체인 Bits of Freedom, Consumentenbond 등은 KPN이 DPI(Deep Packet Inspection)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규제기관의 조사를 촉구하였다[9].

네덜란드 정부는 KPN이 DPI 장비를 이용하여 트래픽을 관리한 것이 프라이버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OPTA와 CBP(Dutch Data Protection Authority)는 KPN의 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2011년 5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법무부(DOJ: Dutch Department of Justice)도 6월에 조사를 개시하였다[10].

이에 대해 KPN은 DPI 기술³⁾을 이용해 왔다는 점은 인정⁴⁾하였으나, DPI 기술 이용에 있어 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KPN의 요금제를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EL&I(Dutc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 장관 Maxime Verhagen은 하원에서의 연설을 통해 인터넷에의 제한없는 접속(free access)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추가 과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Verhagen 장관은 데이터 이용량 또는 전송속도에 따른 과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다만 Skype나 WhatsApp과 같은 특정 서비스에만 추가 과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 망중립성 법안의 성립

네덜란드 하원 의회는 2011년 6월 인터넷 자유화 법안을 상정하였다. 인터넷 자유화 법안은 Proposal for net neutrality (통신법 7.4a), Proposal for safeguards against internet disconnection(통신법 7.6a) 및 Proposal for safeguards against wiretapping(통신법 11.2a) 등 3개 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덜란드 하원 의회는 6월 22일 망중립성 법안을 채택하였다[11],[12]. 망중립성 법안의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망중립성 법안의 주요 내용

제안명	주요 내용
Proposal for net neutrality (통신법 7.4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잡방지, 스팸 차단, 네트워크의 안정성 확보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차단 또는 지체를 금지 • 인터넷서비스의 최소품질수준 유지를 통신사업자에게 의무로 부과 • 대역폭에 따른 요금제 허용
Proposal for safeguards against internet disconnection (통신법 7.6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이용(fraud) 및 요금 미납부 사유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없음.
Proposal for safeguards against wiretapping (통신법 11.2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업자의 DPI 사용 금지

3) 한편 mVoIP 애플리케이션인 Viber는 Vodafone Netherlands가 자사의 앱서비스에 대해 DPI를 이용하여 호를 차단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Vodafone Netherlands는 Viber 차단을 인정한 바 있다.
4) 네덜란드의 모든 ISP들은 법에 의해 이메일 헤더(e-mail headers)와 접속된 URLs 정보를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ISP들은 DPI를 이용하여 왔다.

망중립성 법안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또는 별도의 요금을 과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WhatsApp, Skype 등의 웹 기반의 메시지 및 음성 서비스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만 사용자가 원할 경우 음란물이나 각종 범죄 관련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으며, 웹 사이트와 온라인 광고업체가 사용자의 장비 등에 쿠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망중립성 법안은 통신량 폭주 상태를 해소하고 일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헤비 유저(heavy user)의 트래픽을 제어하는 등 통신사업자의 망 관리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즉, 통신사업자는 품질관리를 위해 통신망 과부하의 원인인 헤비 유저의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안을 위배할 경우, OPTA는 통신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IV. 망중립성 법제화 이후의 동향

1.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통신사업자가 모바일 네트워크를 지나치게 통제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일을 막을 것이라며 통신법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Consumentenbond는 “특정 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 징수는 인터넷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요금 부과와 ‘정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 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Skype는 “네덜란드 하원의 법안 채택을 환영하며, 이것은 유럽 및

다른 나라들이 따라야 할 모범사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Bruno Braakhuis 하원 의원은 이번 법안 채택은 네덜란드 소비자의 승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KPN, Vodafone, T-Mobile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 법안이 모바일 데이터 요금인상 및 네트워크 투자 부진을 야기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Vodafone은 이번 법안 채택으로 인해 헤비 유저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어 대다수 이용자의 요금이 대폭 인상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다양한 서비스에 가격을 차등화할 수 없어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이용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KPN은 성명서를 통해 의회는 이 법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매출 하락⁵⁾을 상쇄하기 위해 향후 모바일 데이터 및 인터넷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9].

한편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Martin Cave 교수는 네덜란드의 망중립성 규제법안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투자 및 고용창출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Martin Cave 교수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의 과도한 규제는 잘못된 것이며, 네덜란드의 경쟁력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망중립성에 관한 법령 제정 필요성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차세대 네트워크의 구축에 있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13].

2. 이동통신사의 요금인상

KPN은 정부의 망중립성 법안 승인에 대한 대응으로 데이터 요금인상을 단행하였다. KPN은 어떠한 서

5) KPN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WhatsApp 때문에 2011년 1분기 기준 메시지 수익이 13%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0년 1분기 8%보다 더 큰 감소세라고 밝혔다.

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KPN 및 Hi 브랜드⁶⁾의 신규 고객들을 대상으로 9월 5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변경된 요금제는 모바일 데이터, 음성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하나의 번들로 통합하고 있는데, 모바일 데이터는 기존 요금에 비해 인상되었다. 예를 들어, 현재 20유로 상품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새로운 요금제의 경우 월 1GB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월 50유로의 번들상품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KPN은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 보조금도 축소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단말기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4].

KPN의 뒤를 이어 Vodafone과 T-Mobile도 새로운 요금제를 발표하였다. Vodafone은 데이터 이용량을 축소한 새로운 요금제 발표하였는데, 8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T-Mobile은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무제한 데이터요금제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제공용량 초과 시보다 낮은 데이터 속도 기반의 초과요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요금제는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15],[16].

V. 결론

네덜란드 의회 및 EL&I가 밝혔듯이 망중립성 법제화는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특정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차단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6) KPN은 KPN, Hi, Telfort, XS4ALL, Simyo, E-Plus, BASE, Getronics, iBasis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음. 이중 KPN 브랜드는 25~45세 사이의 성인을 주요 목표 고객으로 하는 브랜드이고, Hi는 18~24세 사이의 젊은 세대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브랜드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망중립성의 제도화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 망중립성 법제화에 대응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일제 요금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네덜란드의 모바일 데이터 요금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네덜란드의 망중립성 법제화 동향은 망중립성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망중립성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이와 관련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는 네트워크 중립성을 강제하는 법안들이 모두 부결되었다. 특히 FTC(Fair Trade Commission)와 법무부는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억제하는 망중립성은 다양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게 할 경우 망 투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망 사업자가 결국 소비자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망중립성은 또 다른 형태의 사전규제로 그중 특히 가격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가격기구의 합리적 작동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트래픽에 네트워크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소량 이용자에게는 기본 요금만으로, 다량 이용자에게는 기본 요금 외에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부분정액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일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적은 대역폭 이용자가 다량 이용자의 대역폭 비용을 보조한다는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망중립성 법제화 이후 망중립성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논쟁은 결국 “누구나 인터넷 사용에 있어 동등하

다”는 입장과 “불간섭주의가 오히려 진화를 저해한다”는 입장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비스차별화, 망 이용대가 부과, 트래픽 차단, 네트워크 투자유인, 혁신, 이용자 선택권, 품질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유무선 인터넷 접속시장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 양 부문에서 모두 상당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의 혁신을 촉진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쟁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용 어 해 설 ●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망중립성은 일반적으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콘텐츠의 제공과 이용에 있어 망 사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약어 정리

CBP	Dutch Data Protection Authority
DPI	Deep Packet Inspection
DOJ	Dutch Department of Justice
EL&I	Dutc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
FTC	Fair Trade Commission
FUP	fair use policy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MNO	Mobile Network Operator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oIP	mobile VoIP
OPTA	Onafhankelijke Post en Telecommunicatie Autoriteit
SMSoIP	SMS over Internet Protocol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참 고 문 헌

- [1] 변재호, 조은진, “FCC의 망중립성 고시 제정 의의와 영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6권 제2호, 2011. 4.
- [2] FCC, “Report and Order(In Matter of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FCC 10-201, Dec. 23th, 2010.
- [3] OECD, “Internet Traffic Prioritisation : An Overview,” DSTI/ICCP/TISP(2006)4/FINAL, Apr. 4th, 2007.
- [4] Ofcom, “Traffic Management and Net Neutrality,” Discussion Paper, June 2010.
- [5] 総務省, “ネットワークの中立性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 2007. 9.
- [6] OPTA, “New Figures for Communication Markets, Second Half of 2010,” May 11th, 2011.
- [7] Ars Technica, “Mobile Users: Ready to Pay Extra for Skype, IM, Streaming Video?,” Apr. 22th, 2011.
- [8] Dutch News, “KPN to Introduce Charges for Internet Telephony, Instant Messages,” Apr. 22th, 2011.
- [9] BBC, “Netherlands makes net neutrality a law,” June 23th, 2011.
- [10] DutchNews.nl, “KPN under Fire over Internet Privacy,” May 13th, 2011.
- [11] Government.nl, “Telecommunications Act to Guarantee Free Internet Access,” May 24th, 2011.
- [12] Ministry of Economic Affair, Agriculture and Innovation, “Free Internet Laid Down in Telecommunications Act,” June 22th, 2011.
- [13] computing.co.uk, “Why the Dutch Are Wrong on Net Neutrality,” July 15th, 2011.
- [14] AP, “Dutch Telecom Hikes Rates after Net Neutrality Law,” July 19th, 2011.
- [15] Dow Jones Newswire, “All 3 Dutch Mobile Providers Raise Prices For Mobile Internet,” Aug. 1st, 2011.
- [16] Fierce Wireless Europe, “Vodafone, T-Mobile react to Dutch Net Neutrality by Raising Mobile Data Tariffs,” Aug. 3rd, 2011.